

野, 충청 눈치보기... KTX도 '눈물젖은 호남선' 되나

윤장현시장, 최고위 참석

서대전역 경우 반대 호소

충청표심 의식한 새정치

“운행횟수 합리적 조정” 보고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내 호남과 충청권 지지층간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달레마에 빠졌다. 차기 당권주자인 문재인 후보가 꺼내든 ‘호남 총리론’ 발언의 여진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당 소속 윤장현 광주시장이 호남고속철의 서대전역 경우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 석상에서 재접하시키면서다.

새정치연합으로선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과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중원’인 충청 어느쪽도 포기할 수 없는 처지여서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눈물 젖은 호남선’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서대전역을 경우하면 고속철이 아니라 저속철이 된다”면서 “당초 계획된 노선으로 운행되게 당 차원에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호남인이 분노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지역정서에 호소했다.

지도부가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관계를 강화하려고 정기적으로 광역단체장을 ‘옵서버’(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에 부르고 있는데 따른 참석이었지만, 때가 때인지라 그 발언을 놓고 미묘한 파장이 일었다.

충남 출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한 문 후보의 ‘호남 총리론’ 발언을 두고 새누리당 충청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지역 편가르기 발언”이라며 맹공, 충청권에서 동요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충청을 자극할 수 있는 소재가 불거졌다는 점에세다.

한 충청권 의원은 “호남고속철의 경우 충청권 내에서도 대전과 충남·북간 입장이 엇갈려 호남과 충청 전체의 대결구도로 보긴 어렵다”면서 “여권이 일련의 상황을 지렛대로 지역 감정을 부추겨 90년대의 ‘충청 핫바지’를 재점화하는 쪽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은 우려

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당내에서는 다가올 양대선거인 총·대선을 앞두고 여론 등 보수 진영이 충청과 호남의 균열을 부추기며 야권 지지층내 틈새 벌거리를 시도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

실제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비공개로 열린 호남고속철 관련 보고서에서 “서대전역 경우 주장과 반대 주장 모두 일리가 있는 만큼 분열주의자들에 의해 이용 당하지 말고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교통량과 유동인구를 감안, 운행횟수의 합리적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호남, 충청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는 야당의 경우 양 지역간 대립이 격화될 수록 ‘빨갱정치’로 갈 수밖에 없는 모순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계하며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지역간 갈등 국면 속에서도 객관적 자료를 통한 조정 능력 없이 수수방관하며 책임회피성 태도로 일관하는 것도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에서는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우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정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호남선 KTX 서대전 역 경우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애초 노선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

철될 때까지 강력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광협회(회장 김홍주)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인천공항과 수도권의 접근성 때문에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호남의 관광산업을 말살하려는 부도덕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1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정부는 호남고속철도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말고 당초 밝힌 대로 서울 광주간 90분대의 운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윤장현(왼쪽) 광주시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우 철도 촉구 등 지역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亞문화전당 개관·U대회 등 관심 가져달라”

윤시장, 서울 달려가 지역현안 해결 호소

그동안 지역 정치권에 말을 아껴왔던 윤장현 시장이 작심한 듯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지역현안의 관심을 촉구하는 발언을 쏟아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광주 U대회 개막, 호남선 KTX 개통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소극적인 지역 정치권에 서운함을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8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지난해 아시아문화전당 조성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결국 무산된 바 있다”면서 “이번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시장의 2월 국회 처리 발언은 특별법 개

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조지 구성도 지연돼 오는 9월로 예정된 아시아문화전당 개막은 물론 4월 임시개관마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데도, 사실상 박해자 의원(광주 서구갑)만 홀로 고전분투하고 있어서다.

윤 시장은 7월 개막하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관련해서도 “광주U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대회를 끝까지 않고 학생과 화합

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남북단일팀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윤 시장은 또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이 전 국 간선 철도망 중 유일하게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남아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차원에서 전철화 사업을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도 건의했다.

윤 시장은 최근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

의에서 지방재정 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당 차원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는 등 중앙-지방간 합리적인 자원배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마무리말로 “올해는 KTX개통, 광주U대회,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광주·전남 발전의 큰 계기가 마련될 만큼 민생에 있어서 외로운 섬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라며 지역에 대한 관심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 주관으로 열린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초청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낙연 지사-명현관 의장 인사청문회 협약

이낙연 전남지사가 향후 실시되는 전남도의회 인사청문회의 결과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효력이 없는 전남도의회 인사청문회라도 부정적 의견이 다수인 경우 기관장 임명을 심사숙고하겠다는 의미다.

이 지사와 명현관 전남도의회회장은 28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 협약을 교환했다. <사진>

인사청문회 대상은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 출연기관인 전남복지재단, 전남산용보증재단, 전남생물산업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사장과 원장, 이사장 내정자로, 해당 도의회 상임위원들이 인사청문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성, 자질 등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한다. 경과보고서에는 장·단점 의견 표시를 하고 적격 여부는 표시하지 않기로 했다.

인사청문회의 효력에 대해 이 지사는 “청문회 결과가 기관장을 임명하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도의회의 강력한 정치적 요구(반대)가 있으면 정치적으로 존중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오는 3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5차 한·일 지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9일 일본을 방문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장 비서실장 이재의씨

광주시가 신입 비서실장에 광주일보 기자 출신인 이재의(59)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연구원장을 내정했다.

광주시는 28일 “이재의 비서실장 내정자는 광주시 투자유치지원관과 산업지원부장관 정책보좌관 등 중앙과 지방의 행정경험,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 활동 경력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시정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면서 “이 내정자가 시청 공직자와 언론, 시민단체, 시의회, 전남도 등과의 상생 협력 등을 연결하는 적임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내정 이유를 밝혔다.

곡성출신인 이 내정자는 전남대 경제학과와 조선대대학원(박사)을 졸업했으며 2006년부터 나노바이오연구원장을 맡아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 정용식씨

광주시는 28일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에 정용식(52) 광주중앙자동차운전전문학원장을 선임했다.

정 원장은 ‘안철수 신당’인 새정치연합 창당 과정에서 윤 시장(공동위원장)과 함께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지난 6·4지방선거에서는 윤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봉은 9300만원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온천

고창웰파크시티로 가족 여행 떠나자!

게르마늄 온천수로 만든 인공눈썹매장에서 신나는 눈썹매를!
황토벽돌, 편백나무와 한지로 마감한 건강향토펠션에서 아늑한 휴식을!
신비의 게르마늄 온천과 물놀이 시설에서 삼대(三代)가 잊지 못할 추억을!

분양 [063]563-9300 힐링카운티(펜션) [063]560-7300 석정휴스파(게르마늄 온천) [063]560-7500
고창웰파크시티 내 운영 시설_ 힐링 카운티(건강향토펠션), 석정 휴(休)스파(게르마늄 온천), 석정 눈썹매장, 피트니스센터, 연회장, 석정힐스(골프빌라)

고창웰파크시티와 함께 할 인재를 모십니다

▶모집부문
- 분양 경력직 : 실버타운 / 아파트 / 상가
- 영업 경력직 : 리조트 / 레저
- 객실 지배인 : 콘도 / 펜션
- 하우스 키핑 : 콘도 / 펜션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5년 1월 31일 (채용시 마감)
- 접수방법 : 우편, 이메일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처
- 우편: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정2로 173 고창웰파크시티 통합사무실
- E-mail: huspa@naver.com

▶문의처 : 063)560-7581 경영지원실 인사팀

(주)서울시니어스 엠앤에스